

주요 주간 동향 리스트

12월 1호

◆ 주요 동향

1. 저장(浙江)자유무역구, 중국계 편의치적선 국제화물 연안운송 시범사업 시행
浙江自贸区首次实行中资非五星旗船沿海捎带业务
2. 2020년 1~11월 양산항 컨테이너 물동량 1,840만TEU 달성
前11月上海洋山港集装箱吞吐量逾1840万标箱 同比增0.48%
3. 중국의 빠른 경제회복, 유조선 시장 진작할 것으로 예상
中国经济加快复苏将提振油轮市场
4. COSCO Shipping Ports, 샤먼에 자동화부두 R&D센터 설립
中远海自动化码头研发中心试验基地在厦门揭牌
5. 중국 국경통상구 적체로 중~유럽 화물열차 제외한 수출화물 적재 일을 중단
口岸站严重积压, 除中欧班列外国货物一律停装
6. 「중국 항만 고품질 발전 보고서 2020(해항편)」 발표
《中国港口高质量发展报告2020 (海港篇) 》发布
7. 상하이항, 서비스 외연을 쉰저우까지 확장
上海港为何将码头“搬”到苏州?

* 본 주요 동향은 중국의 주요 언론기사를 번역한 내용임

◆ 기타 동향

8. 2020년 상하이항 Sea & Rail 물동량 79% 증가 예상

上海港海铁联运业务今年增长79%

http://info.chineseshipping.com.cn/cninfo/News/202012/t20201211_1346700.shtml

9. Sinotrans, 30억위안에 7개 유럽기업 인수

中国外运30亿收购七家欧洲企业

http://www.simic.net.cn/news_show.php?id=243410

10. 「장강삼각주 스마트해운 발전 보고」 발간

《长三角智能航运发展报告》发布 聚焦智能航运五大领域

http://info.chineseshipping.com.cn/cninfo/News/202012/t20201211_1346734.shtml

11. 장난조선소, 올 한해 8척의 VLGC 교부

中国领先 全球第一 江南造船全年交付8艘超大型液化气船

<https://www.yangtse.com/zncontent/1035041.html>

12. Ningbo저우산항 다푸커우 컨테이너터미널에 국제노선 신규 개통

宁波舟山港大浦口集装箱码头再添国际新航线

https://dhnews.zjol.com.cn/dinghaijishibao/redianxinwen1/202012/t20201208_3321394.shtml

13. 2020년 1~11월 텐진항 컨테이너 물동량 1,700만TEU 돌파

天津港集团前11个月集装箱吞吐量突破1700万标准箱

http://www.tj.gov.cn/sy/tjxw/202012/t20201209_4711277.html

14. '하이난성 '14·5' 콜드체인물류 발전계획' 공개 의견 수렴 시작

《海南省“十四五”冷链物流发展规划》公开征求意见

<http://www.hainan.gov.cn/hainan/5309/202012/c6eba84502ca45b7adbe7b35822152d5.shtml>

작성자 : 장형원 중국연구센터 연구원

육천연 중국연구센터 연구원

김은우 중국연구센터 부연구위원

감수자 : 한광석 중국연구센터 센터장

(kmishanghai@naver.com)/+86-21-6090-0395)

저장(浙江)자유무역구, 중국계 편의치적선 국제화물 연안운송 시범사업 시행

- 2020년 12월 저장자유무역시범구(浙江自贸区)에서 처음으로 중국선사의 편의치적선을 이용한 수출입 환적화물 연안운송 시범사업이 정식 시행됨
 - Ningbo-Hangzhou 관리부처에 따르면 12월 2일 일본 노선을 운항하는 Ningbo Wanyang Shipping Co., Ltd.(닝보 원양)의 컨테이너 정기선 ‘신명주(新明州)66’호가 저장성 자싱(嘉兴)항 자푸(乍浦)항구에서 수출입 환적 적컨테이너 10개를 Ningbo Zhoushan항 베이룬(北仑) 제3터미널 2번 선석으로 운송 및 하역작업을 수행함
- 그동안 중국계 기업의 편의치적선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외국적 선박은 중국내 항만간 해상화물 운송이 금지되는 법규로 인해 많은 화물들이 해외 항만에서 환적됨
 - 2013년 국무원은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전체방안’에서 중자(중국계) 회사가 소유 또는 지배하는 선박을 이용한 중국 연해 항만과 상하이항 간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의 연안운송 시범사업을 허용함
 - 2020년 9월 21일 국무원의 ‘베이징, 후난, 안후이 자유무역시범구 전체방안 및 저장자유무역시범구의 확장구역 방안에 관한 통지’ 발표 이후 Ningbo Wanyang은 교통운수부 및 세관 등 관련 부처들로부터 수출입 컨테이너 환적화물의 연안운송 인가를 받았으며, 11월 9일 총 6척 선박에 대해 교통운수부로부터 저장자유무역구 중자회사 편의치적선 시범사업 자격을 부여받음
- 이번 정책의 시행으로 화주, 해운기업, 항만 모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됨
 - 화주의 경우 노선 선택권이 보다 다양해지고 해운물류 효율의 제고로 비용이 절감되며, 결과적으로 상품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음
 - 선사의 경우 보다 융통성 있게 배선을 할 수 있으며, 선박 이용률 제고, 운영비용 및 에너지 절감, 배출 저감, 경쟁력 제고 등 측면에서 이점이 있음
 - Ningbo Zhoushan항의 경우 집하능력을 제고시킴으로써 국제환적항으로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음
- 현재 중국 상하이, 광둥, 톈진, 푸젠, 저장, 하이난의 총 6개 자유무역시범구의 대외개방항에서 중자회사의 편의치적선에 대해 수출입 컨테이너 환적화물 연안운송을 허용하고 있음
 - 2013년 동 정책 시행 이후 100여척의 선박이 교통운수부에 등록되어 있으며, 최근 몇 년간 해당 수송량이 점점 늘어 2018년 한해에 8.5만TEU의 수송실적을 기록함

(中华航运, 2020. 12. 9.)

http://info.chineseshipping.com.cn/cninfo/News/202012/t20201209_1346631.shtml

2020년 1~11월 양산항 컨테이너 물동량 1,840만TEU 달성

- 2020년 1~11월 상하이 양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동기 대비 0.48% 증가한 1,840여만 TEU를 기록했으며, 올 한해 물동량은 2000만TEU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됨
 - 2020년 10월 양산항 3기 및 4기 터미널에서 각각 72만TEU와 45.5만TEU를 처리해 월별 물동량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
 - 한편, 11월 18일 양산항 4기 터미널은 24시간 주야 작업으로 2.1만TEU의 처리실적을 기록함
-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력 및 차량 통행이 제한되면서 경제발전에 차질을 빚음
 - 양산항 변경검문소 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양산항 입출항 선박은 전년 동월 대비 10.7% 감소한 580척, 출입 인원은 전년 동월 대비 13.3% 감소한 약 1.3만명을 기록했으며, 컨테이너 물동량은 109.6만TEU로, 전월 대비 32.4%, 전년 동월 대비 14.22% 감소함
 - 그러나 3월 들어 양산항 4기 자동화터미널은 인원과 차량의 부족 등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극복하여 전체 양산항의 정상화 생산운동을 지원했으며, 그 결과 3월 한달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 동월 물동량의 95.3% 수준인 163만TEU로 빠르게 회복됨
- 올해 양산항은 도로운송의 수상운송 전환을 통한 서비스 수준 제고, 수상운송의 병목 해소 등을 통해 양산항 1기 및 2기 터미널의 수수(水水)환적 비중을 73.56%로 증대시킴
 - 양산변경검역소는 수출입 컨테이너 인도 방식 최적화, CFS 및 CY 사용료 감면, 수입화물의 냉장창고 사용료 인하, 체선료 면제 등의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하여 항만이용환경 안정화를 도모함
 - 아울러 기업의 운영원가 절감을 위해 전국에서 솔선하여 THC, 항만시설보안료 등의 감면정책을 실시함
 - 이밖에도 온라인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온라인 서류 취급률이 최고 93.7%에 달함

(中国新闻网, 2020. 12. 07.)

<http://www.chinanews.com/cj/2020/12-07/9356157.shtml>

중국의 빠른 경제회복, 유조선 시장 진작할 것으로 예상

- 선박중개회사 Gibson에 따르면, 중국 경제의 회복 속도가 빨라지면서 유조선 시장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원유 수입량은 지난 6월 원유 수입량이 일일 최대치인 1,170만 배럴을 기록한바 있으며, 올해가 마감되어 가고 있는 현시점에도 수요 강세를 나타내는 등 올 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최대 원유 수입국(해상)은 사우디아라비아로, 올해 1~10월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하루 평균 152만 배럴을 수입함
 - 이라크와 러시아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은 중국의 2대 및 3대 원유 수입국으로, 중국은 올 한해 이 두 나라로부터 각각 일일 평균 100만배럴 이상 및 92만 배럴의 원유를 수입함
 - 이밖에 브라질과 앙골라 등 기타 국가들도 중국의 원유 수요 증가로 수혜를 입고 있음
- Gibson은 2021년 수입 쿼터의 증가로 중국 수요가 향후 몇 개월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최근 중국 상무부는 조건에 부합하는 정유공장과 무역회사가 추가적으로 486만 배럴/일의 원유 수입쿼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2020년보다 20% 정도 증가한 것임
- 코로나19가 전체 수요를 파괴시켰지만 중국항 장거리 운송은 유조선 시장에 수요를 증가시킴
 - 이 영향으로 지난주 VLCC 운임이 소폭 상승했으며, 중동에서 중국까지의 28만톤급 운임은 WS2로 상승, 미국 걸프만에서 중국발 27만톤급 운임은 462만 달러로 2만 달러 상승함
 - 희망봉을 거쳐 미국 걸프만으로 가는 27만톤급 운임은 WS15/16 수준, 서아프리카에서 중국발 26만톤급 운임은 WS29.5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수에즈막스급의 경우 흑해서 지중해까지 13.25만톤급 운임은 WS52.5로 유지되었으며, 아프리카막스급은 지난주 제이한에서 라발라까지 8만톤급 운임이 WS60에서 마감됨

(中华航运, 2020. 12. 07.)

<https://www.cnss.com.cn/html/hygc/20201202/338807.html>

COSCO Shipping Ports, 샤먼에 자동화부두 R&D센터 설립

- 2020년 12월 7일 COSCO SHIPPING그룹 산하의 COSCO Shipping Ports사가 신청한 '자동화부두기술 교통운송업 연구개발센터'(샤먼위안하이(厦门远海) 터미널 실험기지)가 교통운수부의 승인을 받아 샤먼에서 현판식을 개최함
 - 동 연구개발센터는 COSCO SHIPPING그룹이 설립된 이후 처음으로 국가가 인정한 산업연구 플랫폼으로, COSCO SHIPPING그룹이 과학기술혁신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질 높은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함
- 동 R&D센터는 중국의 스마트 항만 건설과 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 수요를 중심으로 자동화 부두 건설 및 개조와 관련된 설계, 건설, 운영, 유지보수 등 분야의 핵심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중량·중대 장비 연구개발과 성과 전환 및 응용 등 분야에서 산학연 협력을 추진하여 중국의 자동화 터미널 기술, 장비 및 서비스 역량 구축을 가속화할 것임
- COSCO SHIPPING은 자동화부두 기술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선진 기술과 항만 업무를 깊이 있게 융합해 2016년 중국 최초의 완전자동화 터미널을 건설해 상용화함
 - 2020년 샤먼위안하이 터미널에서는 또 5G 스마트항만의 전체 상황을 시험적으로 응용하였음.
- 향후 샤먼위안하이터미널 실험기지에서는 자동화 기술 및 핵심 제품의 개발, 자동화터미널 표준 제시, 중국 자동화터미널 기술 솔루션 마련 등을 통해 전 세계 터미널의 저비용 고효율 운영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업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됨

(中国港口集装箱网, 2020. 12. 10)

<http://www.portcontainer.com/newsAction.do?command=viewData&categoryId=8a9287fa300b0b0001300b5864990011&dataId=e563d28475e3330401764a884e98009e>

중국 국경통상구 적체로 중~유럽 화물열차 제외한 수출화물 적재 일률 중단

- 최근 중국 철로총국(铁路总局)은 국경 통상구의 화물 적체로 2020년 12월 8일 18:00시부터 13일 18:00시까지 얼론후터(二连浩特)와 아라산코우(阿拉山口)로 도착하는 모든 수출화물의 적재를 일률 정지시킴
 - 이는 철로총국이 지난 11월 19일부터 11월 25일까지 중~유럽 화물열차 외 아라산코우 및 휘얼거스(霍尔果斯) 경유 수출화물의 적재를 일률적으로 정지시킨지 10일 만에 다시 시행한 중단 조치임
- 올해 아라산코우를 통과한 중~유럽 화물열차는 4,500회를 넘었으며, 이는 전년 동기대비 42.83% 늘어난 수치이며, 누적으로는 16,000회를 돌파해 신기록을 경신함
 -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유럽 화물열차의 운행횟수는 빠르게 늘어났고, 일부 국경통상구는 하반기부터 심각한 적체가 발생하면서 국경통상구에서 많은 열차들이 출발이 지연되는 문제가 심각해짐
- 올해는 보다 많은 도시가 중~유럽 화물열차를 개통했으며,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일부 해운, 항공 화물 물량이 철도로 몰려 상반기 중~유럽 화물열차 수송능력이 급속하게 증대됨에 따라 수송능력이 국경통상구의 환적능력을 크게 능가함
 - 이에 철로총국은 중~유럽 화물열차는 적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중~유럽 화물열차 운영회사에 일시적인 운영 중단을 요구했으며, 다수의 회사들은 또 수송능력의 일부를 감소하기도 함

(物流指闻, 2020. 12. 9.)

<https://www.headscm.com/Fingertip/detail/id/17447.html>

「중국 항만 고품질 발전 보고서 2020(해항편)」 발표

- 2020년 12월 4일 중국경제정보사(中国经济信息社)와 교통운수부 수운과학연구원은 항저우(杭州)에서 개최한 ‘강항(强港) 포럼’에서 「중국 항만 고품질 발전 보고서 2020(해항편)」을 공동 발표함
 - 이 보고서는 '혁신, 조화, 녹색, 개방, 공유'라는 항만 고품질 발전 이념을 바탕으로 1등급 4개 지표와 2등급 10개 지표로 구성된 평가지표 체계를 구축해 국내 22개 연안 주요 항만의 고품질 발전 상황을 평가함
- 평가 결과에 따르면 2020년 22개 연안 주요 항만의 종합점수 최고점은 9.07점, 평균 5.74점, 최저 3.87점임
 - 22개 항만 중 상하이항, 닝보 저우산항, 선전항, 칭다오항은 연안항 가운데 가장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보고서는 "국내외 거시환경의 변화에 직면한 항만업계는 새로운 발전 이념을 견지하고 '쌍순환(双循环)'의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여 국가의 중대 지역 발전전략에 강력한 버팀목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 한편, 보고서는 '14.5' 계획 기간 중국 항만의 화물 처리량 증가율이 2%에서 3% 정도 유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中华航运, 2020. 12. 07.)

<https://mp.weixin.qq.com/s/Ezq5N7nePnJo8pl2M01pJA>

상하이항, 서비스 외연을 쑤저우까지 확장

- 최근 상하이에서 열린 ‘장강삼각주 일체화 설명회 및 쑤저우 도시 설명회’에서 상하이항과 쑤저우 타이창(太仓)항은 함께 협력하여 장강삼각주 항만 일체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발표함
- 이에 앞서 지난 10월 15일 SIPG의 ICT(내하컨테이너센터) 프로젝트가 쑤저우에서 착수됨
 - 이 프로젝트의 운영으로 상하이항의 서비스가 쑤저우 바이양만(白洋湾) 연안까지 확장되어 쑤저우 지역 고객에게 보다 저렴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ICT프로젝트가 완공되어 운영되면, 현재 쑤저우~양산항까지 운송시간에 비해 수출입 컨테이너 운송시간을 1~2일 단축할 수 있으며, 표준 컨테이너 1개당 물류원가를 200위안 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쑤저우 소재 제조기업과 수출입 기업은 물류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물류효율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됨
 - 컨테이너가 ICT에 인도되면 ICT에서 수로(양산항 직항), 도로, 철로(철도운송↔루차오(芦潮)항↔양산항까지 피더운송) 3가지 환적운송 방식을 선택하여 운송할 수 있음
- 상하이국제항운연구센터 애널리스트 쉐원칭(谢文卿)은 ICT프로젝트로 쑤저우 및 주변 지역 화주들은 바이양만 세관까지만 화물을 보내면 상하이항에 보낸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공 컨테이너 인수, 적컨테이너 발송’ 과정의 약 90% 운송거리를 단축할 수 있어 화주들의 업무 처리 수준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평가함
- 또한 ICT프로젝트는 정보화 기술을 활용해 원스톱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간편화된 서류신청, 요금납부, 위치조회 등 서비스 제공할 것임

(中国水运网, 2020. 12. 2)

<http://www.zgsyb.com/news.html?aid=575796>